

2013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과제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김 상 만(연구책임자)

2013. 12.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현황	5
1. 수출 중소기업 현황	3
2.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8
3. 수출의 중요성	11
4. 중소기업 수출 현황	13
5.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수출의 문제점	20
III.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현황	62
1.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26
2. 충남의 수출입 현황	27
IV.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 방안	43
1. 현행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제도	34
2.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45
3. 충남도의 지원방안	62
V. 결 론	67
참 고 문 헌	6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지난해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8위를 달성하였고, 2년 연속 수출규모 세계 7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9년 이후 5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은 1,026억달러로 전체의 18.7%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85,966개 중 절반 이상은 수출액이 10만달러 미만이며, 5만달러 이하의 중소수출기업은 42%에 이른다.
- 지난 12월 5일 제50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2020년에는 세계 무역 5강, 무역 2조달러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무역 5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확대와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활약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 확장성은 글로벌 강소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이다.¹⁾ 따라서 글로벌 강소기업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연구개발은 2.1% 증가하였고, 특히 EU에서는 3.2%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총 규모는 49조 8,904억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4.03%로 세계 3위의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1.2%, 일본의 25.2%에 불과하다.
- 2013년 6월 기준 국내 총 연구소 27,566개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소는 25,965개로 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은 평균 81명이지만,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은 평균 5.7명에 불과하다.

1) 산업연구원, “
보」 558, 2013.5.

”, 「-KiET 산업경제정

다. 또한, 2013년 6월 기준 중소기업 연구소 중 연구원 4인 이하의 연구소는 13,010개로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소는 대부분 영세하다.

-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확대가 필요하다.
- 한편, 지난해 충청남도(“충남”)의 수출실적은 621억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은 173억달러로 전년대비 39.9%나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충남의 중소기업 수출기반은 견고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도입된다면,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충남은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 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8위, 수출 세계 7위를 기록하였지만, 안정적인 수출기반 및 경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 ①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율이 1.3%로 매우 낮다. ② 2013.3월 기준 중소기업 연구소 총 10,564 중 연구원 3인 이하의 연구소는 10,070개로 전체의 95.3%를 차지하는 등 연구소가 영세하다. ③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16,725명 중 박사는 단 245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는 등 연구원의 경쟁력이 매우 낮다. ④ 연구소는 주로 전기·전자, 기계,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명과학이나 환경분야에는 전혀 없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현행 지원

제도의 활용, 신규 지원제도의 도입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광역자치단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현황, 제3장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현황, 제4장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 방안, 제5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수출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수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제도의 활용방안,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방안, 신규 지원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지원제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문헌연구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수출 중소기업 현황, 수출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 문헌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수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문헌연구, 유관기관의 자료,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충남의 수출 현황, 수출에 있어 충남의 중요성,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제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등을 분석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충남소재 중소기업이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현황

1. 수출 중소기업 현황

(1)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²⁾에 의하면, 중소기업 실태조사 모집단 전체 중소기업 112,424개 중 수출 중소기업은 13,975개로 전체의 12.4%이며, 내수중소기업은 98,449개로 전체의 87.6%로 조사되었다.
- 수출 중소기업의 인력은 4년 간 꾸준히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수출 중소기업이 내수중소기업에 비해 인력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평균 보유 인원은 2011년 기준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27.3명으로 내수중소기업의 17.7명보다 9.6명 많아, 수출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에 기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2008 대비 2011년)
전 체	2,087,306	2,069,724 (△0.8)	2,087,898 (0.9)	2,122,822 (1.7)	1.7
- 소기업	1,408,342	1,350,262 (△4.1)	1,355,597 (0.4)	1,381,591 (1.9)	△1.9
- 중기업	678,965	719,462 (6.0)	732,301 (1.8)	741,231 (1.2)	9.2
수출 중소기업	342,354	290,892 (△15.0)	445,279 (53.1)	381,363 (△14.4)	11.4
- 소기업	142,121	138,220 (△2.7)	189,457 (37.1)	183,228 (△3.3)	28.9
- 중기업	200,233	152,672 (△23.8)	255,822 (67.6)	198,135 (△22.5)	△1.0
내수 중소기업	1,744,952	1,778,832 (1.9)	1,642,619 (△7.7)	1,741,459 (6.0)	△0.2
- 소기업	1,266,221	1,212,042 (△4.3)	1,166,140 (△3.8)	1,198,363 (2.8)	△5.4

2) 중소기업중앙회, 『

』 2013.6,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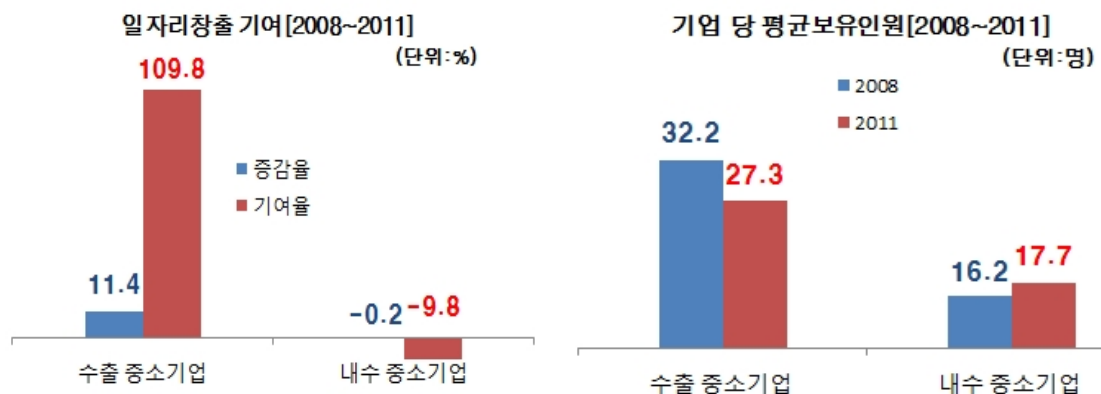
-중기업	478,731	566,790 (18.4)	476,479 (△15.9)	543,096 (14.0)	13.4
------	---------	-------------------	--------------------	-------------------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³⁾

주 : 전년대비 증감율(2008년 증감율은 이전년도와 조사기준이 달라 미기재)

(2) 수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⁴⁾

- 중소기업중앙회의 2009~2012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출 중소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인력 창출효과를 비교한 결과 종사자 현황에서 내수 중소기업은 2008년 1,744천명에서 2011년 1,741천명으로 0.2% 감소한 반면, 수출 중소기업은 2008년 342천명에서 2011년 381천명으로 11.4%가 증가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⁵⁾

* 주 : 1.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또는 내수 중소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2. 증감율은 2008년 대비 증감을 나타냄

- 수출 중소기업의 2011년 기업 당 평균 보유인원은 27.3명으로 내수 중소

3) 중소기업중앙회, 『

』 2013.6, p.1.

4) 2013.6.19.

5) 2013.6.19.

기업의 기업 당 평균 보유인원 17.7명보다 9.6명 많아, 수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내수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출 중소기업 중 중기업은 2011년 기준으로 111.5명으로 소기업 15.0명에 비해 7.4배 많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당 평균보유인원)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전 체	17.6	18.7	18.6	18.9
-소기업	12.7	13.0	12.9	13.2
-중기업	95.5	100.4	98.5	99.7
수출 중소기업	32.2	29.0	30.8	27.3
-소기업	16.3	16.1	15.5	15.0
-중기업	103.5	106.3	113.2	111.5
내수 중소기업	16.2	17.7	16.8	17.7
-소기업	12.3	12.8	12.6	12.9
-중기업	92.5	98.9	92.1	95.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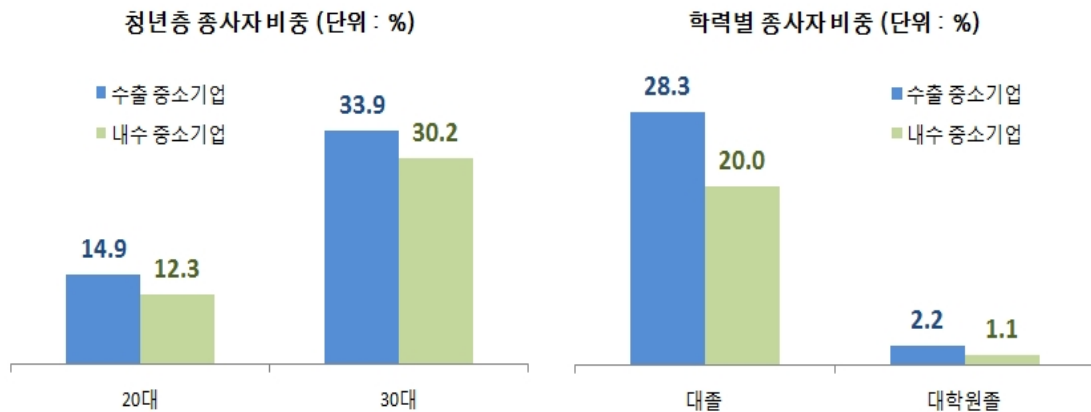
(3) 수출 중소기업의 종사자 현황⁷⁾

- 청년층 종사자 비중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이 2011년 20대가 14.9%로 내수 중소기업 12.3%에 비해 2.6% 높게 나왔고, 30대 역시 수출 중소기업이 33.9%로 내수 중소기업 30.2%보다 3.7% 높게 분석되어 청년층 고용 유발에 수출 중소기업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 학력별 종사자 비중에서는 2011년 수출 중소기업은 대졸 비중이 28.3%로 내수 중소기업의 대졸 비중 20.0%보다 8.3%p 높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대학원졸 비중도 2.2%로 내수 중소기업 대학원졸 비중 1.1%보다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대졸 청년 미취업자 해소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연계가 대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6) 중소기업중앙회, 『

』 2013.6,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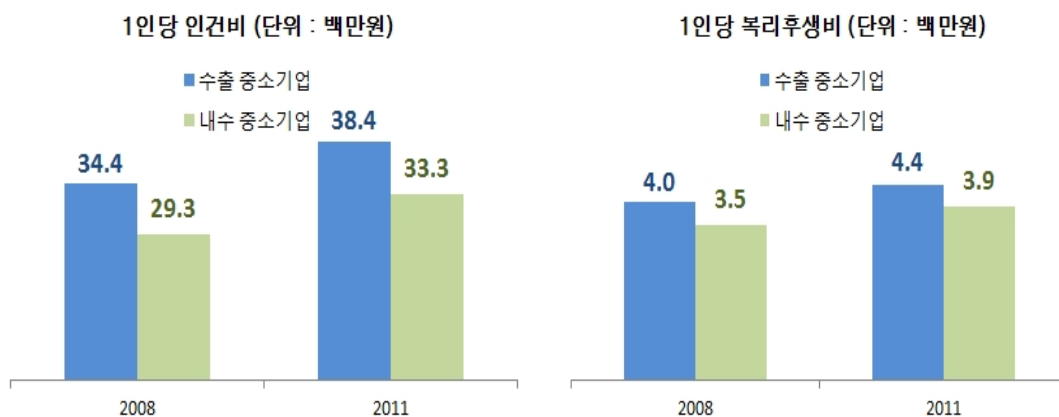
7) 2013.6.1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⁸⁾

(4) 수출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황⁹⁾

- 1인당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인력이 내수 중소기업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는 2011년 38.4백만원으로 내수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 33.3백만원보다 5.1백만원이 높아 수출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복리후생비 역시 수출 중소기업이 2011년 4.4백만원으로 내수 중소기업의 3.9백만원보다 0.5백만원이 높아 복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 2013.6.19.

9) 2013.6.1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¹⁰⁾

(5) 수출 중소기업의 1인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 현황¹¹⁾

- 수출 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011년 335.0백만원인 반면, 내수 중소기업의 2011년 249.7백만원보다 85.3백만원이 높아 수출 중소기업이 내수 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매출액 수준을 유지하였다.

(1인당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전 체	219.0	231.5 (5.7)	245.8 (6.2)	265.0 (7.8)	21.0
-소기업	188.0	201.0 (6.9)	208.0 (3.5)	228.5 (9.9)	21.5
-중기업	283.3	288.8 (1.9)	315.9 (9.4)	333.0 (5.4)	17.5
수출 중소기업	289.5	271.2 (△6.3)	303.0 (11.7)	335.0 (10.6)	15.7
-소기업	228.6	209.5 (△8.4)	223.6 (6.7)	268.9 (20.3)	17.6
-중기업	332.7	327.0 (△1.7)	361.8 (10.6)	396.1 (9.5)	19.1
내수 중소기업	205.2	225.0 (9.6)	230.3 (2.4)	249.7 (8.4)	21.7
-소기업	183.5	200.0 (9.0)	205.5 (2.8)	222.3 (8.2)	21.1
-중기업	262.6	278.5 (6.1)	291.2 (4.6)	310.0 (6.5)	18.1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¹²⁾

주 : 1) () : (2008)
 2) 증감율* : 2008 2011 ! 증감율

- 수출 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2011년 64.9백만원으로 내수 중소기업의 2011년 56.1백만원 보다 8.8백만원이 높아 생산성 역시 수출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1인당 부가가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	------	------	------	------	------

10) 2013.6.19.

11) 2013.6.19.

12) 중소기업중앙회, 『

』 2013.6, p.10.

전 체	49.8	53.6 (7.6)	55.0 (2.6)	57.7 (4.9)	15.9
－소기업	46.3	51.7 (11.7)	49.9 (△3.5)	53.8 (7.8)	16.2
－중기업	57.0	57.1 (0.2)	64.6 (13.1)	64.9 (0.5)	13.9
수출 중소기업	60.5	55.3 (△8.6)	61.2 (10.7)	64.9 (6.0)	7.3
－소기업	50.4	49.8 (△1.2)	48.8 (△2.0)	55.6 (13.9)	10.3
－중기업	67.6	60.2 (△10.9)	70.4 (16.9)	73.4 (4.3)	8.6
내수 중소기업	47.7	53.3 (11.7)	53.3 (0.0)	56.1 (5.3)	17.6
－소기업	45.8	51.9 (13.3)	50.1 (△3.5)	53.5 (6.8)	16.8
－중기업	52.5	56.2 (7.0)	61.4 (9.3)	61.8 (0.7)	17.7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¹³⁾

주 : 1) () : (2008)

2) 증감율* : 2008 2011년 증감율

2.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1) 연구소 및 연구원 현황

- 우리나라의 총 연구소는 2005년 11,810개에서 2013년 6월에는 27,566개로 7년 반 사이에 2.3배 증가하였으며, 연구원은 2005년 163,646명에서 2013년 6월 281,889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 중소기업 연구소는 2005년 10,894개에서 2013년 6월 25,965개로 7년 반 사이에 2.4배 증가하였으며, 연구원은 2005년 90,601명에서 2013년 6월 152,246명으로 7년 반 사이에 1.7배 증가하였다.

(연도별 연구소 및 연구원의 수(2013.6월))

(단위 : 개, 명)

연도	총 연구소	중소기업 연구소	총 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원
2005	11,810	10,894	163,646	90,601

13) 중소기업중앙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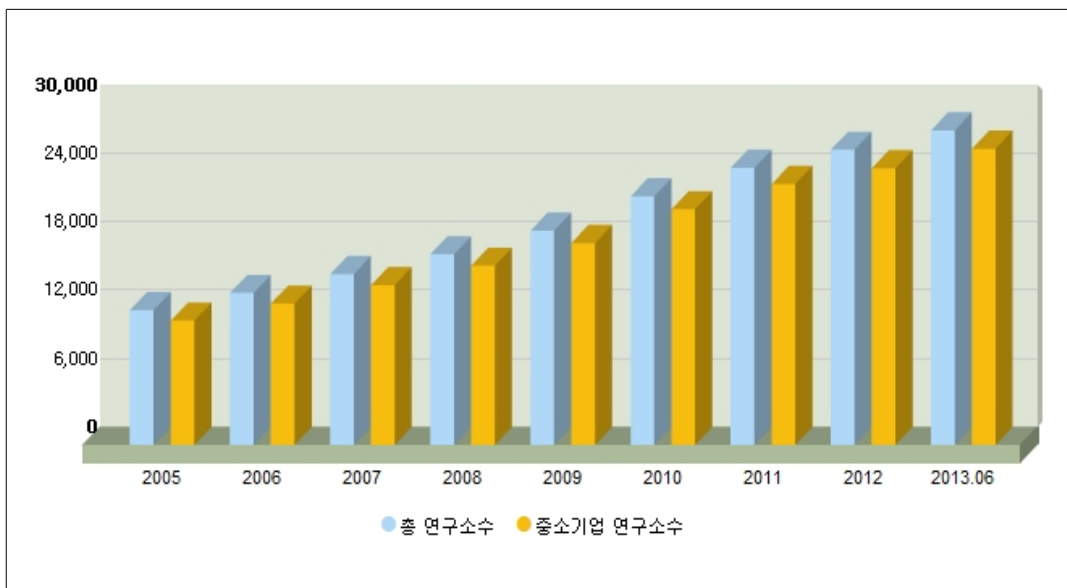
」 2013.6, p.10.

2006	13,324	12,398	179,709	100,595
2007	14,975	14,014	193,340	111,348
2008	16,719	15,696	209,137	122,944
2009	18,772	17,703	219,975	131,031
2010	21,785	20,659	235,596	141,080
2011	24,291	22,876	257,510	147,406
2012	25,860	24,243	271,063	146,833
2013.06	27,566	25,965	281,889	152,246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¹⁴⁾)

- 우리나라의 전체 연구소 및 중소기업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연구소 수 추이(2005-2013.6))



(2) 연구소 별 연구원 수

- 2013년 6월 기준 국내 총 연구소 27,566개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소는 25,965개로 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연구원 281,889명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원은 152,246명으로 54.1%에 불과하다.

14) <http://www.koita.or.kr> (→ → R&D).

-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은 평균 81명이지만,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은 평균 5.7명에 불과하다. 또한, 2013년 6월 기준 중소기업 연구소 중 연구원 4인 이하의 연구소는 13,010개로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소는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

(연구원 수별 연구소(2013.6월))

연구원 수	연구소 수	중소기업 연구소 수
2~4인	13,010	13,010
5~9인	10,422	10,415
10~49인	3,546	2,412
50~300인	506	128
301인 이상	82	0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학력별 연구원 수

- 2013년 6월 기준 학력별 연구원을 살펴보면, 총 281,889명 중 박사는 15,629명으로 5.5%이고, 석사는 74,598명으로 26.5%이며, 학사 이하는 191,662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 중소기업 연구원의 경우 총 152,246명 중 박사는 4,378명으로 2.9%, 석사는 27,733명으로 18.2%이고, 학사 이하는 120,135명으로 78.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박사급 연구원의 비중이 낮은데, 특히 중소기업 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연구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학력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학력별 연구원 수(2013.6월))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기타	총계
총 연구원	15,629	74,598	163,051	26,144	2,467	281,889
비 중(%)	5.5	26.5	57.8	9.2	0.9	100
중소기업 연구원	4,378	27,733	91,827	26,033	2,275	152,246
비 중(%)	2.9	18.2	60.5	17.1	1.5	100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기술분야별 연구소

- 2013년 6월 기준 기술분야별 연구소를 살펴보면, 전기전자분야가 7,089개로 가장 많고, 기계분야 4,727개, 화학분야 2,141개 등의 순이다.
- 중소기업 연구소의 경우에도 전기전자분야가 6,67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분야 4,407개, 화학분야 1,902개 등의 순이다.

(기술분야별 연구소(2013.6월))

구 분	총 연구소	중소기업 연구소	총 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원
건설	877	808	5,307	3,560
금속	1,050	977	6,617	4,315
기계	4,727	4,407	50,803	24,491
생명과학	738	687	6,707	4,263
섬유	325	307	1,958	1,478
소재	908	844	5,823	4,180
식품	665	604	5,059	2,886
전기·전자	7,089	6,679	112,949	43,632
화학	2,141	1,902	23,554	12,099
환경	726	707	3,337	3,093
산업디자인	1,188	1,161	8,600	5,985
기타	1,453	1,386	8,320	6,087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수출의 중요성

(1)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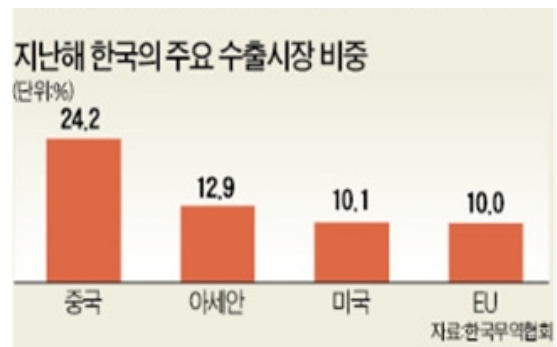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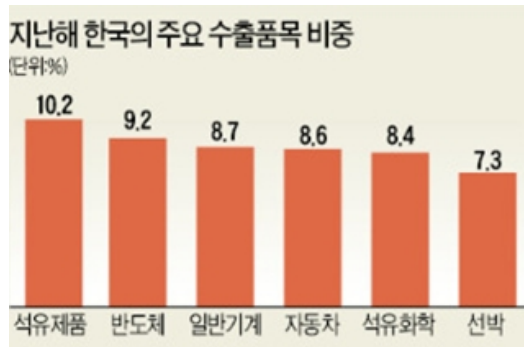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64년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64년 12월 5일을 ‘제1회 수출의 날’로 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는 현재의 ‘무역의 날’로 변경하였다.
- 1964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평균 19.2%씩 증가하였고, 1977년 100억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40%에 달하였다. 그 결과

1964년에 59개국 중 98위였던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2010년 세계 7위로 급상승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2020년 무역규모 2조달러 및 세계 무역 5강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우리에게서 무역이 생존조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수출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 부족, 금융기관의 부실 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다. 그러나 수출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전인차 역할을 하였다.
- 또한, 수출은 2001년의 IT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및 위기극복의 해결사 역할을 하였다.
- 수출은 고용 창출과 외화 획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9년부터 5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간에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들 중에서 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 중국, 네덜란드 4개국 뿐이다.
-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외환보유고 3천억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기준으로는 외환보유고가 3,561억달러로 전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원유생산이 전혀 없는 나라이지만, 석유제품, 유화제품 등의 석유제품은 연간 1,000억달러 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품목비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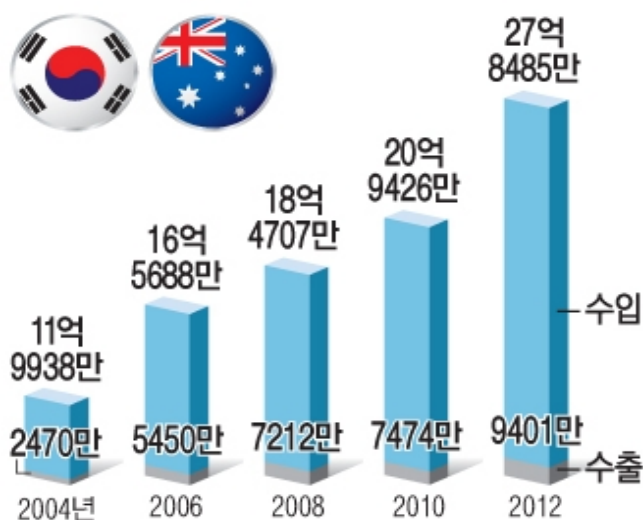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

- 우리나라는 칠레, EU, 미국 등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들 국가의 GDP를 합하면 39.9조달러로 전세계 GDP의 41.0%에 달한다. 또한, 지난 12월 4일 한-호주 FTA가 타결됨에 따라 FTA 체결국은 48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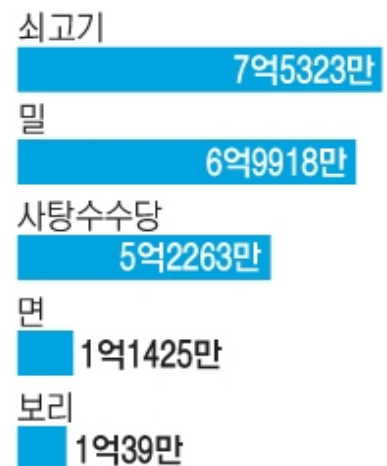
(한·호주 교역 현황)¹⁵⁾

한·호주 농산물 교역 규모 단위:달러



호주산 5대 수입농산물

단위:달러, 2012년 기준



15) 2013.12.9. |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6109&subMenu=articletotal)

- 그리고 중국과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GDP 20조5천억달러, 인구 17.1억명의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 FTA 체결국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역 확대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추격이 만만치 않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무역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4. 중소기업 수출 현황

(1) 중소기업 수출 개황

- 지난해 기준 사업자번호상의 수출 중소기업 수는 85,866개사로 나타났다. 그 중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중소기업은 44,708개사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였다. 전체 수출실적의 감소에도 중소기업 수출은 1.1% 증가한 1,026억달러로 전체의 18.7%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은 12.0%로 추정되는 바, 간접수출을 포함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은 30.7%에 이른다.¹⁶⁾
- 중소기업의 수출은 1개 품목, 1개 국가에만 수출하는 업체가 각각 44%, 55%에 달하여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도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모두 자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⁷⁾
- 한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실적은 각각 819억달러 및 3,638억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14.7%로 전년도와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66.4%로 전년도의 66.8%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¹⁸⁾

16) 장상식, “중소기업 수출 현황”, Trade Focus, 2013.2, p.1.

17) 장상식, “중소기업 수출 현황”, Trade Focus, 2013.2, p.1.

18)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기업을 말하고, 대기업은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012 590). 그리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제도 시행에 의해 2011 1 1 .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억달러, %)

구 분	2011		2012		증가율
	수출액	비 중	수출액	비 중	
중소기업	1,106	18.3	1,026	18.7	1.1
중견기업	819	14.7	804	14.7	-1.8
대 기 업	3,710	66.8	3,638	66.4	-1.9
합 계	5,552	100.0	5,479	100.0	-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수출금액별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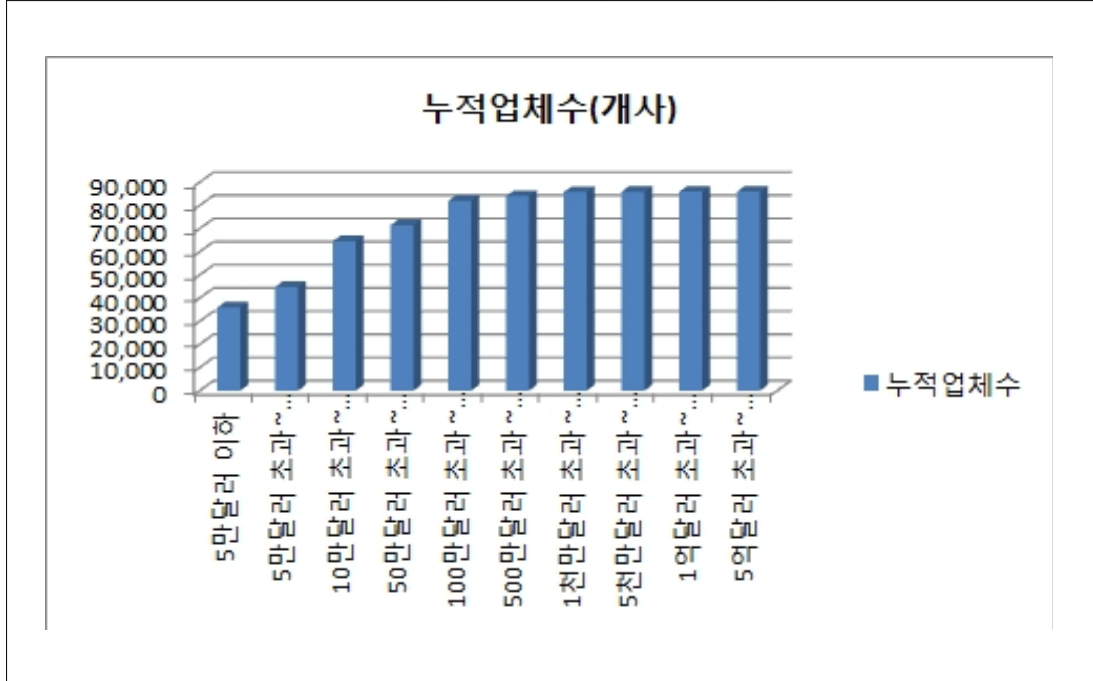
-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수출을 수출금액별로 구분해 보면, 5만달러 이하의 수출업체 수는 35,843개로 전체의 41.7%에 이르고, 5만달러 ~ 10만달러의 수출업체 수는 8,865개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수출규모 10만달러 이하인 수출업체 수는 44,708개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수출기업 중 절반이상은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로 수출규모가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인 수출업체 수는 총 71,407개로 전체의 83.2%를 기록하고 있어, 중소수출기업의 대부분은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하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 개사, %)

구 분	업체수	비중	누적업체수	누적비중
5만달러 이하	35,843	41.7	35,843	41.7
5만달러 초과 ~ 10만달러 이하	8,865	10.3	44,708	52.1
10만달러 초과 ~ 50만달러 이하	19,726	23.0	64,434	75.0
50만달러 초과 ~ 100만달러 이하	6,973	8.1	71,407	83.2
100만달러 초과 ~ 500만달러 이하	10,467	12.2	81,874	95.4
500만달러 초과 ~ 1천만달러 이하	2,041	2.4	83,915	97.7
1천만달러 초과 ~ 5천만달러 이하	1,758	2.1	85,673	99.8

5천만달러 초과 ~ 1억달러 이하	149	0.2	85,822	100.0
1억달러 초과 ~ 15억달러 이하	42	0.1	85,864	100.0
5억달러 초과 ~ 10억달러 이하	2	—	85,866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종합해 보면,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수출 10만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500만달러 이상 수출업체 중 연평균증가율이 전체증가율 이상인 ‘글로벌 강소기업’ 비중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¹⁹⁾

(3) 업종별 및 국가별 수출 현황

- 업종별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차산품이 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공업이 34%, 중화학공업이 15%이었다. 1차산품은 주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수출이 필요하다.
- 품목별로 보면, 섬유류, 생활용품의 비중이 높고, 광산물, 전기전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잡제품, 전기전자의 증가세가 높은 반면, 철강금속, 광산물은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 장상식, “

”, Trade Focus, 2013.2, p.1.

(업종별 수출 현황)²⁰⁾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 액	(비중)	증감율	금 액	(비중)	증감율	금 액	(비중)	증감율
농림수산물	3,876	(53.7)	-1.4	1,981	(27.5)	18.3	1,280	(17.7)	2.3
광산물	1,584	(2.5)	-7.2	1,819	(2.9)	-14.8	59,296	(94.6)	9.1
화학공업제품	14,508	(22.2)	(0.6)	11,910	(18.2)	6.4	38,817	(59.5)	-1.6
플라스틱고무기타제품	6,284	(43.0)	(5.3)	2,534	(17.3)	-40.3	5,801	(39.7)	74.6
섬유류	11,097	(71.2)	(-1.5)	2,470	(15.8)	1.4	1,931	(12.4)	-7.1
생활용품	2,313	(66.8)	(-0.4)	722	(20.9)	37.9	403	(11.6)	92.1
철강금속제품	10,417	(22.0)	(-8.9)	7,357	(15.5)	3.8	29,605	(62.4)	-4.6
기계류	29,063	(17.6)	(1.9)	23,210	(14.1)	-1.7	112,832	(68.1)	-9.8
전기전자	22,292	(13.5)	(6.2)	28,122	(17.1)	-1.8	114,082	(69.3)	-0.4
잡제품	1,214	(65.6)	(21.1)	321	(17.3)	11.1	217	(11.7)	-24.0
총 계	102,649	(18.7)	(1.1)	90,447	(14.7)	-1.8	363,823	(66.4)	-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국가별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을 보면, 러시아지역은 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0%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이란이 25억달러로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다.
- 반면, UAE는 16억달러로 전년 대비 18.5% 감소하였고, 대만은 22억달러로 16.4% 감소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인도는 각각 16억달러 및 22억달러로 전년 대비 7.6% 및 7.3%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은 244억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다.

20) 장상식, “

”, Trade Focus, 2013.2, p.2.

(국가별 수출증가율 현황(2012))²¹⁾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호 조 국 가	러시아연방	3,191 (27.0)	베트남	3,026 (48.3)	말레이시아	5,000 (50.40)
	이란	2,470 (16.0)	태국	1,626 (24.9)	사우디	7,080 (43.9)
	사우디	1,441 (15.4)	홍콩	3,758 (22.9)	필리핀	4,999 (22.5)
	태국	2,462 (13.4)	인도네시아	1,483 (18.7)	호주	7,080 (22.1)
	필리핀	1,570 (11.5)	미국	10,354 (9.9)	네덜란드	3,814 (19.0)
	멕시코	1,713 (11.3)	러시아연방	1,549 (4.7)	싱가포르	15,182 (18.0)
	베트남	5,065 (11.2)	중국	18,467 (3.7)	슬로바키아	3,458 (16.7)
부 진 국 가	UAE	1,606 (-18.5)	이란	565 (-44.0)	독일	4,818 (-25.2)
	대만	2,232 (-16.4)	사우디	590 (25.6)	이탈리아	2,049 (-24.6)
	독일	1,561 (-7.6)	멕시코	917 (-22.1)	대만	9,702 (-22.2)
	인디아	2,193 (-7.3)	UAE	990 (-20.5)	태국	4,120 (-17.3)
	중국	24,400 (-4.0)	말레이시아	1,438 (-17.7)	브라질	8,397 (-15.7)
	호주	1,103 (-3.6)	독일	1,118 (-17.7)	터키	2,936 (-11.1)
	홍콩	4,837 (-2.9)	인디아	1,883 (-14.5)	폴란드	2,600 (-11.1)

주: ()은 전년 대비 증가율

(4)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현황

- 최근 8년간(2004~2011년)간의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수출의 경우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 년도에 5.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1.9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2011년에는 2.8억 달러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9년의 5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한편, 전체 기술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면, 기술수출의 경우 2009년에 14.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5.5%로 급감하였고, 2011년에는 7.0%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0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치를 보

21) 장상식, “

”, Trade Focus, 2013.2, p.4.

이고 있다. 그리고 기술도입의 경우 2007년에 22.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14.2%를 기록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무역 추이(2004~2011년))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기술수출		
	전체(A)	중소기업(B)	비중(B/A)
2004년	1,416	120	8.5
2005년	1,625	155	9.6
2006년	1,897	171	9.0
2007년	2,178	235	10.8
2008년	2,530	240	9.5
2009년	3,582	524	14.6
2010년	3,345	185	5.5
2011년	4,032	282	7.0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1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무역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수출액은 2.8억 달러이지만 기술도입액은 14.1억 달러로 기술도입 금액이 5배나 된다. 기술수출 업체는 210개 이지만, 기술도입 업체 수는 3,089개로 기술도입 업체수가 14.7배이며, 기술수출 건수는 502건이지만, 기술도입 건수는 4,986건으로 9.9배에 이른다. 그리고 1백만달러 이상의 기술수출은 13건이지만, 기술도입은 47건으로 3배가 넘는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출과 기술도입에 있어 금액은 물론, 건수, 업체 등에서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무역 현황(2011년))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	금 액	업체수	건 수	백만 달러이상 건수
기술수출(A)	282	210	502	13

기술도입(B)	1,405	3,089	4,986	47
배수(B/A)	5.0	14.7	9.9	3.6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5.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수출의 문제점

(1) 개설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5대 유형(내수저부가형, 내수고부가형, 대기업의존형, 수출저부가형, 수출고부가형) 중에서 ‘수출고부가형’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이익률에서 ‘내수저부가형’이 가장 높고 ‘수출고부가형’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²²⁾
- 지난해 기준, 수출품목을 1개 취급하는 업체수가 37,765개사로 전체의 44%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수출기업 80%의 수출품목수가 4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1개 이상의 수출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는 4,457개사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지난해 기준 1개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수출업체는 47,271개사로 전체의 55% 차지하였으며, 1~3개국으로 수출하는 중소수출기업은 68,478개사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수출품목 수가 4개 이하이고, 수출국도 3개국 이하인 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수 및 수출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문제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율이 1.3%로 매우 낮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잠

22) 현대경제연구원, “

”, VIP

515 , 2013.2, p.8.

재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둘째,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의 수가 영세하다. 2013년 6월 기준 중소기업 연구소는 25,965개로 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소 수는 많은 편이지만, 연구원 4인 이하의 연구소가 전체의 50%가 넘어 연구소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연구소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중소기업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간 컨소시엄구성을 통해 연구원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연구원의 학력을 보면,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152,246명 중 박사는 4,378명으로 2.9%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연구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의 보장이 필요하다.

(3) 수출 중소기업의 문제점²³⁾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의 차이가 심하고, 중소기업은 고부가가치의 수출이 적다. 우리나라 323만개의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이 한 건도 없는 기업이 97.3%나 된다.
- 독일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중소기업은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높다.²⁴⁾ 독일 중소기업의 제조업 부문 수출을 분석해 보면, 전기장비(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및 가전기기 등)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23.3%)을 차지하고, 금속 가공품(12.7%), 정밀광학기기(6.0%) 수출 비중이 높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부문인 섬유 및 의류의 수출 비중이 각각 8.6%와 10.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 중소기업의 5대 유형별(내수저부가형, 내수고부가형, 대기업의존형, 수출저부가형, 수출고부가형) 비중을 보면, 2011년 현재 표본 내 ‘내수저부가형’이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고부가형’과 ‘대기업의존형’이 각각 20% 내외, ‘수출주력형’이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내수저부가형’ 중소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기간 50%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현재 50.7%를 기록하였으며, ‘내수고부가형’ 비중은 2011년 현재 21.7%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21.4%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23) 2013.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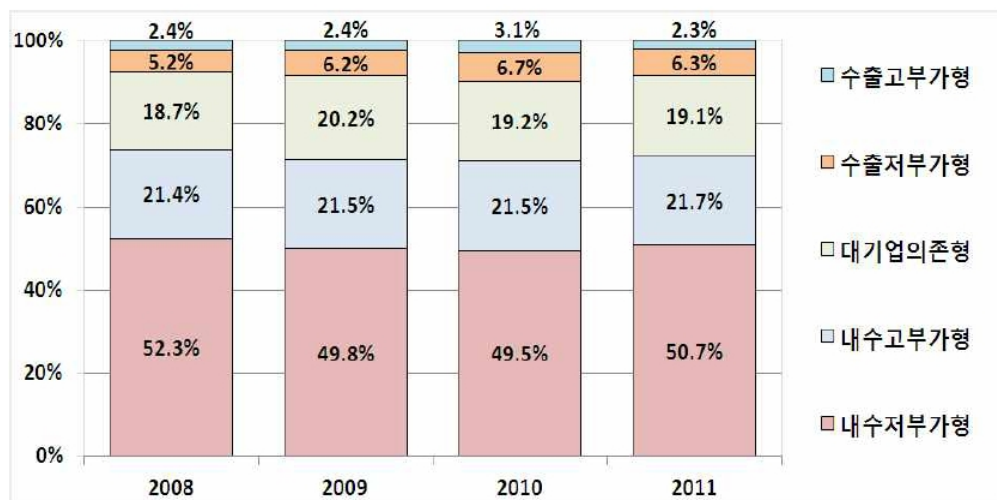
24) 현대경제연구원, “ ”, 2013.4, p.5.

25) 현대경제연구원, “ ”, 2013.4, p.5.

2011년 현재 ‘수출주력형’ 중소기업 비중은 8.6%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7.6%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 ‘수출주력형’을 다시 ‘수출고부가형’과 ‘수출저부가형’으로 구분할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표본수 대비 각각 2.3% 및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대기업의존형’ 비중은 2011년 현재 19.1%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18.7%)보다 높아졌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 5대 유형별 추이)²⁶⁾



- 인력 창출효과 비교분석 결과와 더불어 수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현황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6.11~6.13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 227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수출활동을 시작한 이후, 수출활동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활동을 하면서 늘어난 인력 수는 평균 2.3명으로 조사되었고,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가진 기업이 전체의 66.1%로,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평균 4.6명으로 나타났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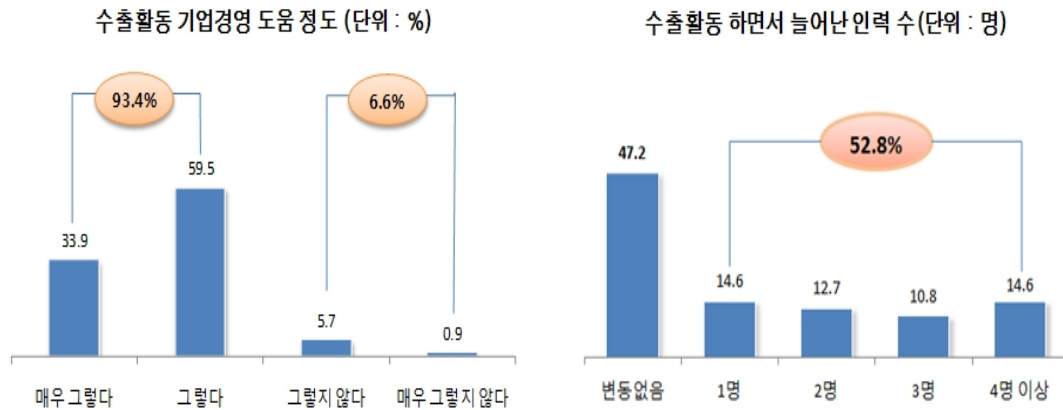
26) 현대경제연구원, “

”, VIP

515, 2013.2, p.6.

27) 중소기업중앙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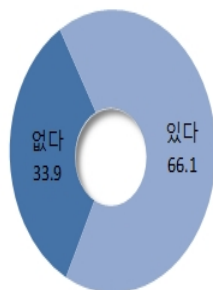
”, 2012.6, p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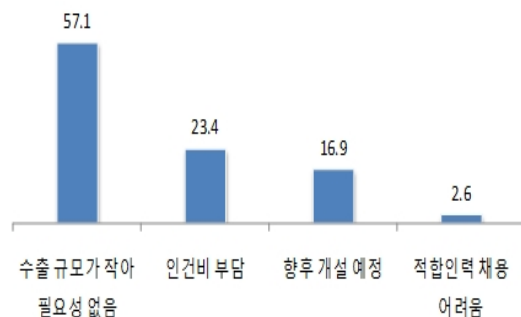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²⁸⁾

- 수출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66.1%, 그렇지 않은 곳은 33.9%에 달했다. 수출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의 경우 수출규모가 작아 필요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향후 수출 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인력 창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이유로는 ‘수출 규모가 작아 필요성 없음’(57.1%)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23.4%), ‘향후 개설행’(16.9%) 순으로 드러났다.²⁹⁾

수출 전담부서 현황(단위 : %)



수출 전담부서가 없는 이유(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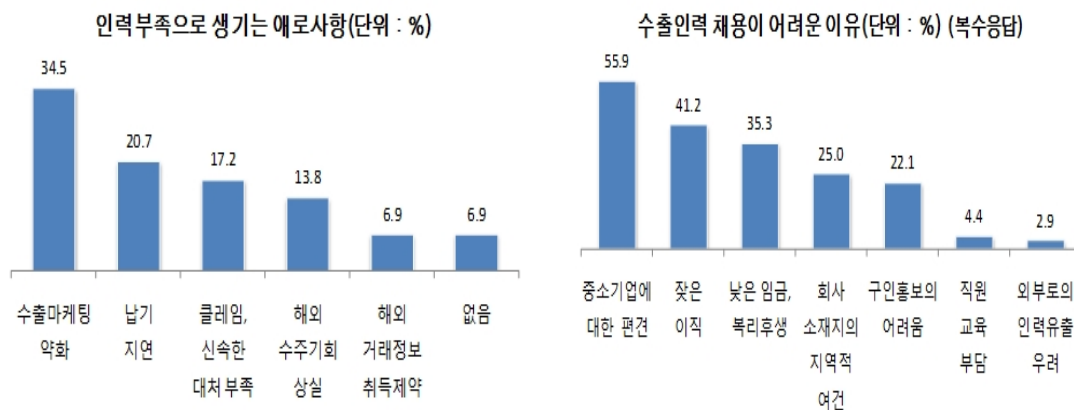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³⁰⁾

28) 2013.6.19.

29) 2013.6.19.

- 한편, 수출기업의 인력 부족 애로사항 및 인력 채용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조금·세제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의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중소기업이 인력부족으로 겪는 애로사항으로 ‘수출마케팅 약화’가 3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납기지연’(20.7%), ‘클레임, 신속한 대처부족’(17.2%), ‘해외 수주기회 상실’(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55.9%), ‘잡은 이직’(41.2%), ‘낮은 임금, 복리후생’(35.3%), ‘회사 소재지의 지역적 여건’(2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³¹⁾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³²⁾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제지원’(34.8%), ‘근로환경 개선지원’(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³³⁾
- 중소기업중앙회는 위와 같이 수출 및 내수 중소기업의 인력 창출효과 비교분석 및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 중소기업에 비해 인력 창출에 기여하

30) 2013.6.19.

31) 중소기업중앙회, “

”, 2012.6, pp.13-17.

32) 2013.6.19.

33) 중소기업중앙회, “

”, 2012.6, pp.18.

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청년층 및 고학력 고용 유발에도 효과적인 걸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안을 했다.

- 창조경제에서 발현되는 산업의 역동성은 얼마나 생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에 상품의 다양성과 희소성에 기초하여 개발된 수출 복합성 지수를 이용하면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전통적인 수출경쟁력 지수와 함께 한 나라의 산업역량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일본·한국·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상품의 복합성 지수와 수출점유율의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미국은 수출 복합성 지수가 높은 쪽으로 밀집된 분포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높은 쪽으로 밀집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밀집도가 덜 두드러져 수출역량의 저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 선박 등 7개 품목군에 수출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수출 복합성 구조는 변화의 폭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밀집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³⁴⁾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과의 수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출 복합성 지수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34) 윤우진, 『

Ⅲ.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현황

1.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1) 충남소재 중소기업 연구소 현황

- 충남소재 총 연구소수는 1,068개이며, 그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소수는 956개로 전체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충남소재 연구소의 총 연구원 수는 11,329명이며, 그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원수는 6,007명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하고 있다.
- 중부권지역(충남, 대전, 충북, 강원)의 연구소수를 살펴보면, 총 연구소수는 3,249개이고 중소기업 연구소는 2,986개이다. 총 연구소수 및 중소기업 연구소수에서 충남이 대전에 근소하게 앞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대전의 총연구소는 1,035개로 충남 보다 33개 부족하며, 중소기업 연구소는 956개로 충남 보다 5개 부족하다. 충북은 총 연구소 838개 및 중소기업 연구소 773개로 대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강원은 총 연구소 308개 및 중소기업 연구소 296개로 가장 적었다.
- 그러나 중부권지역(충남, 대전, 충북, 강원)의 연구원수를 살펴보면, 총 연구원수 및 중소기업 연구원수에서 대전이 각각 13,020명 및 6,035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은 그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이 총 연구원수 6,377명 및 중소기업 연구원 수 4,341명으로 3위를 기록하고, 강원은 총 연구원수 1,647명 및 중소기업 연구원 수 1,452명으로 가장 영세하다.
- 충남이 총 연구소수 및 중소기업 연구소수면에서 중부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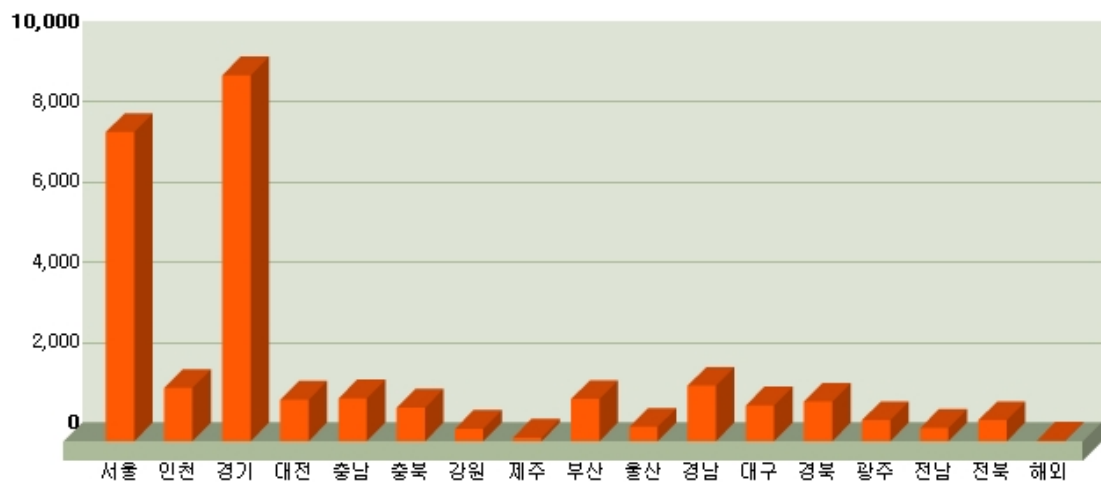
(수도권 및 중부권 연구소 현황(2013.6월))

구분		총 연구소수	중소기업 연구소수	총 연구원수	중소기업 연구원수
수도권지역	서울	7,701	7,377	67,780	47,618
	인천	1,329	1,250	12,028	6,809

	경기	9,115	8,551	121,237	50,544
	소계	18,145	17,178	201,045	104,971
중부권지역	대전	1,035	956	13,020	6,035
	충남	1,068	961	11,329	6,007
	충북	838	773	6,377	4,341
	강원	308	296	1,647	1,452
	소계	3,249	2,986	32,373	17,835
제주		88	84	437	381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별 연구소 현황(2013.6월))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충남의 수출입 현황

(1) 충남의 수출입 개요

- 지난해 충남의 수출실적은 62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한편, 지난해 충남의 수입실적은 335억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28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수입실적의 1.05배로 수출이 수입을 근소하게 앞섰고, 무역수지흑자는 수출실적의 5.2%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충남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실적이 수입실적의 1.85배이고 무역수지흑자비율은 수출실적의 45.2%에 이른다. 충남은 대표적인 무역흑자 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충남의 수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³⁵⁾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연도	충 남					전 국				
	수 출		수 입		수 지	수 출		수 입		수 지
	금액	%	금액	%	금액	금액	%	금액	%	금액
2012	62,031	3.5	33,509	-0.4	28,523	548,076	-1.3	519,582	-0.9	28,494
2011	59,954	10.9	33,615	35.0	26,341	555,214	19	524,413	23.3	30,801
2010	54,054	37.1	24,893	30.1	29,161	466,384	28.3	425,212	31.6	41,172
2009	39,428	-8.2	19,129	-35.3	20,299	363,534	-13.9	323,085	-25.8	40,449
2008	42,936	-10.2	29,556	10.8	13,380	422,007	13.6	435,275	22	-13,267
2007	47,823	22.7	26,674	19.3	21,149	371,489	14.1	356,846	15.3	14,643
2006	39,961	16.2	22,362	25.2	16,599	325,465	14.4	309,383	18.4	16,082
2005	33,520	14.5	17,863	15.8	15,656	284,419	12	261,238	16.4	23,180
2004	29,272	47.8	15,426	37.0	13,846	253,845	31	224,463	25.5	29,382
2003	19,806	30.7	11,262	20.6	8,5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편, 지난해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수출에서 충남은 경남을 앞서 울산, 경기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수출비중은 울산 17.8%, 경기 16.0%, 충남 11.3%, 서울 10.7%, 경남 10.2% 순이었다.

35) 충청남도, “2012 2013 ”, 2013.2.; , “2013 10 ! 수출입 현황”, 2013.11. (<http://www.chungnam.net>.)

(시·도별 수출비중 및 증가율)

(단위 : 백만달러, %)

시·도	2012(1월~12월)				2011(1월~12월)			
	순위	수출액	증가율	비중	순위	수출액	증가율	비중
합계		547,869		100		555,213		100
울산	1	87,980	0.5	17.8	1	101,480	42.2	18.3
경기	2	97,213	-4.2	16.0	2	87,557	2.2	15.8
충남	3	62,031	3.5	11.3	4	59,954	10.9	10.8
서울	4	58,709	4.8	10.7	5	56,003	23.5	10.1
경남	5	52,109	0.0	10.2	3	65,807	12.7	11.9
경북	6	55,961	-15.0	9.5	6	52,129	16.0	9.4
전남	7	41,906	4.8	7.6	7	39,992	31.5	7.2
인천	8	26,710	-0.4	4.9	8	26,805	27.5	4.8
광주	9	14,133	5.9	2.6	10	13,340	15.2	2.4
부산	10	12,045	-1.0	2.5	9	14,562	17.7	2.6
충북	11	13,557	-6.9	2.2	12	12,170	17.8	2.2
전북	12	12,007	-6.3	2.2	11	12,818	22.0	2.3
대구	13	6,984	9.6	1.3	13	6,371	22.7	1.1
대전	14	4,274	3.7	0.8	14	4,122	16.2	0.7
강원	15	2,142	8.3	0.4	15	1,977	31.0	0.4
제주	16	108	8.2	0	16	100	1.7	0
기타		-	-			26	-	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충남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지난해 기준 충남의 10대 수출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제품, 전자응용기기, 컴퓨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중간원료, 자동차, 기초유분 순이었다.
- 직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석유제품, 전자응용기기, 자동차부품, 기초유분 등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합성수지 등은 감소하였다.

- 10대품목이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지난해 81.8%(508.4억달러)로 2011년도의 82.4%(492.9억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3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55.0%(341.51억달러) 2011년 60.5%(362.3억달러)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비중 및 증가율)³⁶⁾

(단위 : 백만달러, %)

품 목	2012(1월~12월)				2011(1월~12월)			
	순위	수출액	증가율	비중	순위	수출액	증가율	비중
		50,835		81.8		49,286		82.4
반도체	1	16,598	-8.3	26.7	1	18,109	10.2	30.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	11,715	-13.0	18.9	2	13,473	-20.8	22.5
석유제품	3	5,838	25.6	9.4	3	4,650	88.8	7.8
전자응용기기	4	4,533	94.1	7.3	5	2,335	193.7	3.9
컴퓨터	5	2,359	-8.1	3.8	4	2,567	36.8	4.3
합성수지	6	2,247	-1.9	3.6	6	2,291	18.6	3.8
자동차부품	7	2,237	58.4	3.6	9	1,412	10.3	2.4
석유화학중간원료	8	2,072	12.5	3.3	7	1,841	20.6	3.1
자동차	9	1,947	17.4	3.1	8	1,658	5.9	2.8
기초유분	10	1,289	35.6	2.1	11	950	74.7	1.6

- 지난해 기준 충남의 10대 수입품목은 원유, 석유제품, 석탄, 정밀화학원료,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합금철선및고철, 식물성물질, LPG, 전선, 제지원료 순이었다.
- 직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원유·정밀화학원료·LPG 등의 원자재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석탄·강판제품및기타철강제품 등은 원자재 도입단가 하락으로 감소하였다.
- 10대품목이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2011년도의 77.2%(259.7억달러)에서 78.4%(262.3억달러)로 약간 상승하였고, 그 중 3대 수입품목(원유, 석유제

36) 충청남도, “2012

2013

”, 2013.2.

품, 석탄)의 비중은 2011년 66.2%(222.87억달러) 에서 지난해 68.0% (227.76억달러)로 높아졌다.

(충남 10대 수입품목의 비중 및 증가율)³⁷⁾

(단위 : 백만달러, %)

품 목	2012(1월~12월)				2011(1월~12월)			
	순위	수입액	증가율	비중	순위	수입액	증가율	비중
		26,230		78.4		25,974		77.2
원유	1	16,652	16.1	49.7	1	14,347	60.3	42.6
석유제품	2	3,460	-7.5	10.3	3	3,742	13.2	11.1
석탄	3	2,664	-36.5	8.0	2	4,197	25.8	12.5
정밀화학원료	4	649	14.0	1.9	6	570	32	1.7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5	566	-37.5	1.7	4	906	23.8	2.7
합금철선철및고철	6	559	-3	1.7	5	576	10.8	1.7
식물성물질	7	534	13.5	1.6	7	471	14.9	1.4
LPG	8	396	17.9	1.2	10	336	106.6	1.0
전선	9	394	1.1	1.2	9	390	55.1	1.2
제지원료	10	356	-19.1	1.1	8	439	-10.8	1.3

(3) 충남의 시·군별 수출입 현황

-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상위 3개 시·군(아산·서산·천안)의 지난해 수출액 비중은 91.4%였다.
- 특히, 공주시는 2011년 수출순위 5위에서 지난해 전자응용기기 품목 호조 세에 힘입어 당진시를 제치고 4위를 기록하였다.

(충남의 시·군별 수출비중 및 증가율)³⁸⁾

(단위 : 백만달러, %)

시·도	2012(1월~12월)	2011(1월~12월)
-----	--------------	--------------

37) 충청남도, “2012 2013 ”, 2013.2.

38) 충청남도, “2012 2013 ”, 2013.2.

	순위		수출액	증가율	비중	순위		수출액	증가율	비중
	충남	전국				충남	전국			
합 계			62,095	3.6	100			59,954	10.9	100
아산시	1	1	36,667	1.9	59.0	1	1	35,968	3.5	60.0
서산시	2	12	13,306	22	21.4	2	13	10,908	49.6	18.2
천안시	3		6,806	-20.5	11.0	3		8,557		
동남구		23	5,675	-31.6	9.2		17	8,293	-8.9	13.8
서북구		77	1,131	328.6	1.8		126	264	556.6	0.5
공주시	4	57	1,753	50.3	2.8	5	75	1,166	740.2	1.9
당진시	5	59	1,680	4.4	2.7	4	61	1,610	15.9	2.7
서천군	7	115	371	-2.5	0.6	6	114	380	12.8	0.6
예산군	8	120	338	6.8	0.6	7	121	316	36.9	0.5
논산시	9	140	189	23.7	0.3	10	149	153	35.2	0.3
청양군	10	148	143	3.4	0.2	11	152	139	17.2	0.2
홍성군	11	159	111	26.3	0.2	13	166	88	76.8	0.1
부여군	12	160	110	-28.5	0.2	9	147	155	61.8	0.3
금산군	13	164	103	5.5	0.2	12	163	97	27.3	0.2
보령시	14	187	50	5.8	0.1	14	189	47	63.3	0.1
태안군	15	230	10	10.5	0.0	15	228	9	92.5	0.0
계룡시	16	252	1	-10.2	0.0	16	248	2	6.8	0.0
기 타			457	27.3	0.7			359	34.5	0.6

(전국순위는 276개 시·군·구별 수출 순위임)

- 지난해 아산시는 충남도 수출액의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출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금년 10월까지의 수출실적에서도 아산시는 전국 기초단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별 수출 실적)

(단위 : 천달러, %)

구 분	순위	수출실적	증가율	수출실적	증가율
합 계		547,869,792	-1.3	463,784,774	1.9
충남 아산시	1	36,658,490	1.9	33,009,371	11.7
경북 구미시	2	33,935,813	2.5	30,464,855	11.4

전남 여수시	3	31,086,570	5.0	27,327,779	7.1
울산 남구	4	33,684,367	-0.2	27,317,491	-2.7
울산 울주군	5	27,746,400	5.9	19,037,984	-18.3
울산 북구	6	21,664,973	6.2	17,759,129	0.3
경남 거제시	7	19,477,584	-30.1	15,590,923	-9.9
서울 강남구	8	15,403,141	7.0	13,609,729	6.6
경남 창원시 의창구	9	18,336,153	3.3	12,823,934	-17.9
경기 화성시	10	14,763,753	-0.3	12,754,292	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입 현황

- 지난해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은 173억달러로 전년대비 39.9%나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27.9%를 차지하였다.

(충남소재 중소기업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총수출액	39,428	54,054	59,953	62,095
중소기업수출액	6,164	9,436	12,360	17,297
중소기업 수출비중 (증가율)	15.6 (11.5)	17.5 (53.1)	20.6 (31.0)	27.9 (39.9)

IV.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 방안

1. 현행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제도

(1) 지원제도 개요

-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제도는 인력지원제도 및 기술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제도에는 기술개발, 기술사업화·이전, 특허전략, 기타 분야로 구분할 있다.

(연구개발 지원제도 유형)³⁹⁾

구 분	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①전문연구요원제도 ②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③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④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⑤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Brain Pool) 사업 ⑥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⑦브레인스카우팅사업 ⑧해외우수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⑨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 ⑩기술인재지원사업 ⑪에너지인력 양성사업 ⑫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⑬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기술지원제도	
1) 기술개발분야 지원제도	①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사업 ②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③ 이공계 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 사업 ④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⑤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⑥ 신제품개발지원사업
2) 기술사업화·이전분야의 지원제도	①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② 기술신탁사업 ③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④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⑤ 특허기술의 초기상용화 지원사업
3) 특허전략분야 지원제도	①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②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4) 기타 분야 지원제도	①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②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③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 한편,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연구개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음의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 5.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8.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9.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11.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12. 중소기업 품질혁신(싱글PPM 등) 지원 13. 의료기기 비교임상, 품질성능 비교평가 및 국제인증 지원사업 14.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15. 공산품 시험·분석 및 계량·계측기기 교정 16. 시험연구장비 무료이용개방 17.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18. 뿌리기업 육성 사업
---	---

(2)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형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시장지향적 신제품·신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중소기업형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지향적 신제품·신상품 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할 수 있다. 지원과제 모형은 제품서비스, 지식서비스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3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12.;
2013.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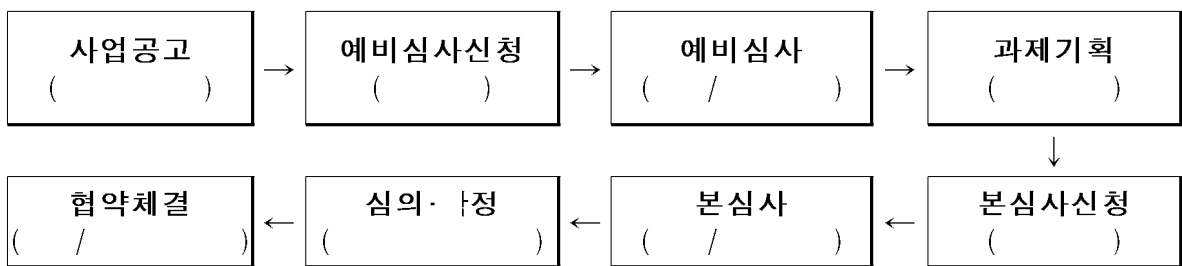
, 『 - 령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aspx>,

①제품서비스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②지식서비스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과제

□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1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사업추진절차



(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하여 R&D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 신청자격 및 신청기술의 범위

-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단체 등이다. 그리고 신청기술은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그리고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이다.

□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 개발하고자하는 신기술의 타당성분석, 시장성 및 성공가능성 분석, 사업전략 수립 등의 기획지원
- 과제발굴연구회 : 조합 및 단체 등 업계의 공통 애로기술 및 유망기술 사전기획 및 발굴
-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 : 개별기업의 R&D 역량 진단을 통해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제품기획 등의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

□ 지원절차

(1)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2) 신청 및 접수	(신청자→전문기관)
(3) 평가지원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4) 심의·확정	전문기관
(5) 협약체결/자금지원	(신청자↔기획기관)
(6) R&D사업 연계	(우수과제)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사업개요

-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 첨단기술 분야 등 혁신기업의 미래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분야

- 글로벌전략기술개발(306억원) :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 지원
 - ① 글로벌중소기업 육성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 발굴, 지원
 - ② 투자연계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 연계

방식 지원

- * 혁신기업기술개발(848억원)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의 녹색성장, 제조 기반, 첨단기술 등 미래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유의사항
글로벌전략기술 개발	최대 2년, 10억원	60% 이내	지정공모
혁신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1차, 2차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5)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사업개요

-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 지원분야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①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 2년 이내이다(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민간과제는 대기업에서 20% 부담)

② 중소기업제안 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제안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 1년 이내이다.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2)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은 해외글로벌기업, 최근 4년 이내 포춘지 500대 기업 등에서 제안한 과제나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에는 글로벌협력과제와 기업제안과제가 있다.

☞ 해외수요처 범위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①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협력과제는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이다.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 2년 이내이다.(중소기업 50%이상 부담)
-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를 선정한다.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② 기업제안과제

- 기업제안과제는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이다.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하며, 개발기간 1년 이내이다. (중소기업 50%이상 부담.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 기업제안과제는 자유응모로 과제제안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고 대상 과제로 선정된다.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	정부출연금 (억원)
구매조건부	지정 공모	수요조사 과제	민간	총개발비의 55% 이내1)	최대2년, 5억원이내	359
			공공	총개발비의 75% 이내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년, 2.5억원 이내	
해외수요처	지정 공모	글로벌협력 과제		총개발비의 50% 이내	최대 2년, 5억이내	100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50% 이내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1)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사업추진절차

(1) 과제발굴	(구매기관)
(2) 사업공고/신청접수	(중소기업청/온라인)
(3) 현장 · 경영 평가	(관리기관)
(4) 과제평가	(전문기관)
(5) 심의 · 확정	(중소기업청)
(6) 협약체결/자금지원	(수요기관 · 중소기업)
(7) 중간점검	(관리기관)
(8) 최종평가	(전문기관)

(6)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복합형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R&D 활성화 및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지원분야

- 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과제 내외

- 이전기술과제

공공연구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기술 등 보유기술이전과제 내외

- 센터연계형과제

중소기업기술융복합지원센터에서 발굴 기획된 과제중에서 추천된 우수 과제

(7)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가. 녹색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지원

□ 사업개요

- “녹색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은 해외 녹색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녹색정책·환경규제를 검토하고, 자금조달 방안,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는 9억원이며, 지원대상은 10개 프로젝트 내외이다.
- 지원대상 : 개별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주 컨소시엄 구성 기업이다.

- ① 국내업체가 기획하여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프로젝트 중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녹색 프로젝트
- ② 국내업체가 해외 발주처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중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녹색 프로젝트
- ③ 공개입찰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녹색 프로젝트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비 고
정부지원금	100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총사업비의 70% 이내	기업부담금 30%이상
개발기간	10개월이내	2개월 연장가능

* 프로젝트 및 과제의 성격·난이도에 따라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나. 프로젝트 후속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프로젝트 후속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 녹색 프로젝트 수주시 컨설팅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체결, 법인설립, 기술이전, PF 금융컨설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는 2.5억원이며, 지원대상은 10개 내외의 과제이다. 지원대상은 개별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수주대상 컨소시엄 주관기업이다.
- ① 국내업체가 기획하여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중 기업이 자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수주(개발)가 유망한 프로젝트
- ②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프로젝트 중 전년도 타당성조사 지원결과 적격 판정한 녹색 프로젝트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비고
정부지원금	30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100%	추가발생시 업체부담
개발기간	5개월이내	1개월 연장가능

* 프로젝트 및 과제의 성격·난이도에 따라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다. 글로벌 벤더참여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글로벌 벤더참여 컨설팅 지원사업은 글로벌기업 벤더참여(납품공급)시 컨설팅 받는데 필요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시장·정책·통관·유통 조사, 벤더등록 다큐멘테이션, 납품거래 조건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는 2.5억원이며, 지원대상은 10개 내외의 과제이다. 대형 녹색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글로벌기업(1차 벤더 포함)에 부품·소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해외소재 기업에 녹색기술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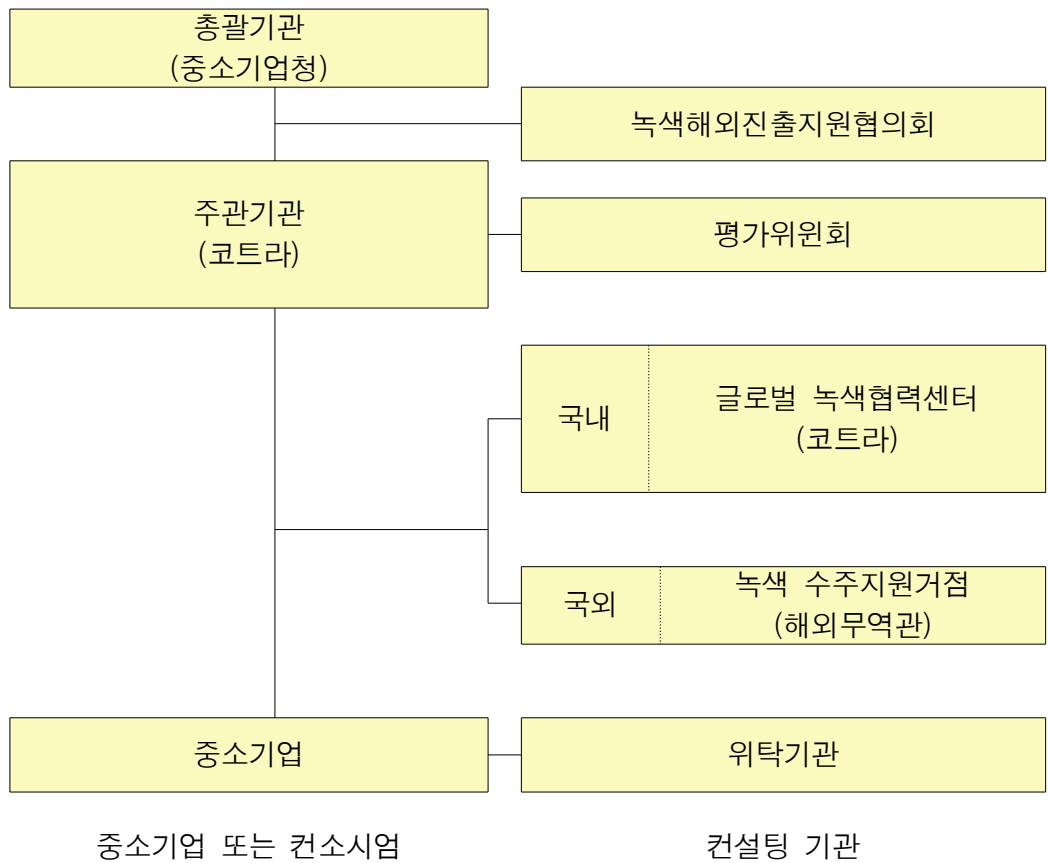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비고
정부지원금	30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100%	추가발생시 업체부담
개발기간	5개월이내	1개월 연장가능

* 프로젝트 및 과제의 성격·난이도에 따라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라.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체계도



□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

기관명	주요 추진내용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예산확보 및 사업홍보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스템 구축·운영 ○ 서면/대면평가, 현장평가(필요시) ○ 협약체결, 사업비 관리 및 지급, 과제 수행 관리 ○ 평가위원회구성·운영 ○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지원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총괄 및 관리

(대표기업), 지원기업	○ 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참여기업	○ 과제 공동 수행
외주용역기관	○ 지원컨소시엄(기업)의 위탁 전문 사업 수행 ○ 위탁 전문 사업 결과 보고 및 관계자료 제출
전문수행기관	○ 위탁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과제 수행

2. 현행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1) 지원제도 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는 지원유형에 따라 금융지원, 보증(보험)지원, 기타 간접적인 수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금융지원제도에는 무역기금, 포괄수출금융, 특례신용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대출, 단기수출자금 대출,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등이 있다.⁴⁰⁾
- 보증(보험)지원제도는 크게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도가 있다.
-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요지원제도에는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등이 있다.⁴¹⁾ 특히 2012년 기준 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의 활용률은 23.6%로 우리나라 수출의 약 4분의 1이 수출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보험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증은 업체당 최고 30억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증종류는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무역금융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구매자금용보증 등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수출과 가장 직접적인 보증은 무역금융보증이다.

40) 중소기업진흥공단, 『

』 2013, pp.131-139.

41) 한국무역보험공사, 『

』 2012.

- 기타 간접적인 기술수출 지원제도에는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사업,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시장조사, 비즈니스출장, 해외민간네트워트활용사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온라인수출지원사업, FTA수출컨설팅사업 등이 있다.⁴²⁾

(2)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가. 수출금융 개요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금융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수출금융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 수출금융제도)

구 분	주요내용
중장기 수출금융	○ 수출물품 인도 후 최종 결제시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대규모 자본재 등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출자에게 지원
해외수입자앞 직접대출	○ 외국 구매자(수입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입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의 구매자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상품
포괄수출금융	○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의 특정 수출거래에 대한 제한 없이 일괄 대출하는 상품
단기수출자금대출	○ 수출대금이 수출물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수출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에 대하여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 안정성만을 간단히 평가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용으로 대출하는 상품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소요되는 기술개발(R&D)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해외시장개척자금 대출	○ 수출기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시설확장증설용	○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

42)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bc.or.kr/sbc/business/market/exhibition/exhibition_outline.jsp), 2013.8.28. - 방문

수출자금대출	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반출지원자금대출	○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에 수출물품을 사전 반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작 및 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수출용원자재공급 팩토링금융	○ 신용도가 양호하지 않거나 제공할 담보가 부족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자 앞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외화표시 매출채권을 추가적인 담보 없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대출상품
상생협력대출	○ 원청 대기업을 대신하여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사에 결제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

나. 단기수출자금대출

- 수출대금이 수출물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결제되는 단기수출거래에 대해 수출물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수출물품 선적 후 최종수출대금 결제기일까지 묶이는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이다.(선박 및 플랜트 제외)
- 동일한 수출계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 및 수출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회전한도를 설정한 후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기수출자금대출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품목	○ 모든 품목(전기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 선박과 산업설비 제외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받은 금액' 범위 내 * 지식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우 수출계약금액이 확정되는 않은 런닝 로열티(running royalty) 방식의 판권수출계약에 대한 대출금액은 총제작비에서 홍보비용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의 50% 이내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기간	○ '수출대금 결제기일 + 30일' 이내 (단, 2년 미만)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회전한도 설정	○ 수출자의 과거 수출실적 및 수출예상규모 등을 감안하여 회전

	<p>한도를 설정한 후 개별거래별로 신속하게 대출가능</p> <p>○ 회전한도 사용기간 : 1년</p>
--	---

다. 포괄수출금융

-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내에서 자금용도를 특정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 포괄수출금융은 대출기간에 따라 단기포괄수출금융(6개월)과 중기포괄수출금융(1년)으로 구분된다.

(포괄수출금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제외 ○ 수출실적 : 직접 해외수출하였거나 수출물자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한 실적
대출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 등)로 가능 ○ 원화, 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표시 대출시, 고객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통화전환옵션」과 「환율상환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 통화전환옵션환율상환옵션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포괄수출금융 : 수출실적의 90%이내 (차세대 수출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수출초보 중소기업,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은 100%) ○ 중기포괄수출금융 : 수출실적의 60%이내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 은 수출실적의 70%,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품목,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수출초보 중소기업 및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100%) 단, 기업당 350억원(단, 중소기업은 250억원)이내 ○ 다만, 수출규모 등에 따라 600억원(단, 중소기업은 400억원)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포괄수출금융 : 6개월 ○ 중기포괄수출금융 : 1년 ※ 기간만료시, 상환하지 않고 재대출 가능

	※ 단기 및 중기포괄수출금융 이용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의 전부나 일부를상환한 경우 대출승인금액 이내에서 재인출 가능(단, 단기포괄수출금융은 3회 , 중기포괄수출금융은 6회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채권보전	○ 우량기업 : 신용대출 ○ 기 타 :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라. 수출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 수출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이란,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출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출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용)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 하여 그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 기술기반 신설중소기업 수출거래 : 설립5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이행능력평가를 생략하고 외부기술평가등급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수출거래 ○ 재해기업 수출거래 : 자연재해(채풍,홍수,지진 등), 재난(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거래 ○ 차세대(성장산업)수출거래: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수출거래, 기술력 관련 국내외 외부인증 보유기업의 인증과 관련된 수출거래 ○ 수출초보기업 및 포괄금융방식 납품협력중소기업 지원거래 : 직수출 규모가 미화1백만 달러이하인 중소기업 및 개별 원청기업(수출기업)에 대하여 수출용 원자재 납품거래기간이 1년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거래 <p>※ 다만, 다음 각 호의 수출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목적물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수출거래 ○ 본지사(현지법인 포함)간 D/A, D/P 등의 무신용장 결제방식의

	수출거래 ○ 단기 또는 중기포괄수출금융을 이용중인 기업의 수출거래 등 ○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 당행 상환재원인 수출대금결제에 15일을 가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화 등)로 가능 ○ 원화, 미달러, 엔화 또는 유로화표시 대출시, 고객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통화전환옵션」과 「환율상환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 통화전환옵션환율상환옵션
대출한도	○ 기업별 : 20억원 (단, 자기자본의 100% 이내) ○ 거래별 : 적격금융기관 신용장거래 20억원 (다만,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90% 범위 내) ○ 이행성 보증거래 20억원 등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기일 + 15일' 이내로 하되, 6월 미만 (단, 이행성보증은 1년 미만)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채권보전	○ 신용대출 (단, 연대보증 입보, 수출대금채권 및 수출 목적물 양도담보)
회전한도 설정	○ 주요 구매자별 한도 구분설정 또는 다수 구매자 대상 한도 설정 가능 ○ 회전한도 사용기간 : 1년
평가기준	○ 수출거래의 안전성 평가사항 ○ 수입자의 신용등급, 자기자산 등 신용도 ○ 장단기 공급계약 여부 ○ 적격신용장 여부 및 결제조건 등 ○ 예외적으로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출거래 ○ 수출입은행이 인정한 적격금융기관의 취소불능신용장방식 수출거래 ○ 수출입은행이 인정한 적격구매자와의 수출거래 ○ 수출이행능력 평가사항 ○ 수출경력, 기업형태 등 일반사항 ○ 제조시설 보유 여부 및 가동상황 등 제작능력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안정성

마.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은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소요되는 기술개발(R&D)자금을 대출하는 수출금융이다. 융자대상은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수출거래 중소기업,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업이다.
-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1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차주의 회계연도부터 지원대상기준이 반영된 물품의 연간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자금용도는 수출물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소요자금으로 연구설비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구입비, 자체·위탁 R&D비용,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운전자금 등이 해당된다.
- 융자한도는 실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 이내에서 융자되며, 연구설비 포함 2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⁴³⁾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회계연도 기준 수출실적의 합계액이 매출 합계액의 20% 이상(신성장동력산업은 10% 이상)인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의 수출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제약개발의 대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육성대상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인증 5년 이내 기업
대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술개발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R&D)로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술에 한함 ○ 신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유사 국외 임상승인기관의 임상 1상 또는 임상 2상 승인기준으로 기술평가등급 양호여부를 결정하며, 수출목적의 해외임상 3상을 추진하거나 수출계약이 체결된 기술개발에 한함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기업규모 등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 중견기업 : 80억원(연구시설 구입비 50억원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43) 중소기업진흥공단, 『

』 2013, p.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50억원(연구시설 구입비 20억원 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 바이오·제약기업 : 1,000억원 * 단, 동일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는 그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외 * 실소요자금 산정 시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설비의 설치, 연구개발용 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 자체 및 위탁 R&D 비용,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운영자금을 포함함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가능) ○ 단, 신성장동력산업은 1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 대출인 경우 만기일 시상환 가능)

바. 해외시장 개척자금대출

- 해외시장 개척자금대출이란, 해외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해외시장 개척자금대출)

구 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중소·중견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대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조사, 해외진출컨설팅, 해외바이어 발굴, 전시회·박람회·세미나 참가, 해외홍보 활동,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수출실적의 1/3 이내 ○ 단, 중견기업은 30억원, 중소기업은 20억원 이내 *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무역기금(해외시장개척자금용)융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외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가능)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2년 이하 대출인 경우 만기일 시상환 가능)

사.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이란, 수출기업의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 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대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 녹색성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수출거래 기업 ○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 기업(히든챔피언 인증 5년 이내 기업 포함)
대상요건	○ 신규공장건설, 기존공장의 증축 및 개보수 ○ 수출촉진 효과가 있는 공장의 매입 ○ 기계류 및 각종 설비구입설치, 노후설비의 교체 및 개보수
대출한도	○ 실 소요자금의 80% 이내 ※ 신용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담보 제공시 실 소요자금의 100%까지 가능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 (미달러, 엔, 유로 등)로 가능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율 ○ 기준금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 가산율 : 대출기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적용 금리정보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가능) ※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3년 이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수출보험)

가. 무역보험(수출보험) 개요

-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무역보험(수출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부대적으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및 해외채권회수도 실시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역보험(수출보험 포함) 및 부대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무역보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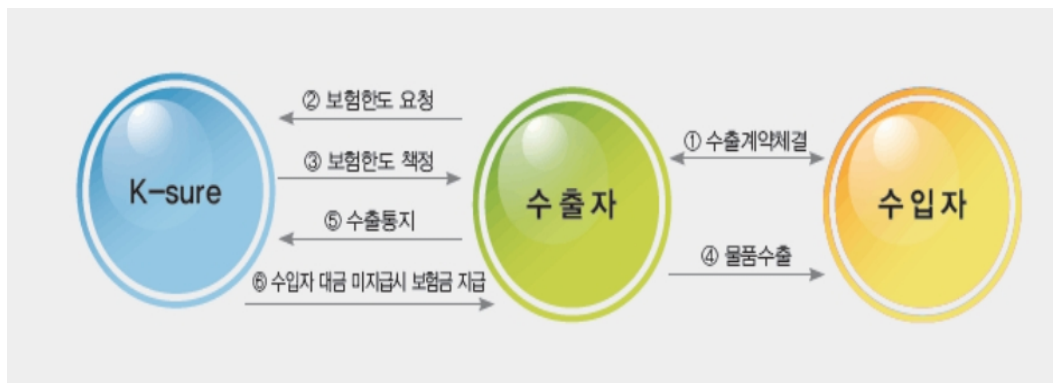
(주요 무역보험(수출보험) 및 부대업무)

구 분	주요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開設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포함)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그 상환채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국외기업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외채권 추심대행업무	○ 해외채권 추심대행업무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는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거래 도해)



- 대상거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등이다.

- 1)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방식
- 2)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3)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4)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 보험계약자는 수출자가 되며, 부보율은 일반수출이나 위탁가공무역은 중소기업은 100%이고 중견기업은 97.5%이다. 보험료는 평균 2.74% 수준이며, 기간이 짧을 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 할수록 저렴하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주요 보험계약 내용)

구 분	내 용
보험계약자	○ 수출자
보험가액	○ 수출대금
부보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이내 ○ 상기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 보험가액 X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
보험료	○ 보험금액 X 보험요율

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무역보험공사가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현행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반면, 동 제도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중견-중소기업만 지원대상이 된다.
-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수출대금(또는 임대료)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180일) 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의 주요 내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용자요건	수출실적 U\$3백만 이하 F급 이상 중소기업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F급 이상 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담보위험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특약) 수입국 위험, 무역클레임 위험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특약) 수입국 위험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 대상 수 입자	청약(신규 추가)시 사전등록 (20개 이내)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신용등급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업체,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 제외	청약(신규 추가)시 사전등록 (10개 이내)
위험별 책임 금액	기본위험 : 최대 U\$300천 수입국위험 : 최대 U\$1백만 클레임위험 : 최대 U\$50천 최소책임금액 : U\$10천	기본위험 : 최대 U\$500천 수입국위험 : 최대 U\$1백만 클레임위험 : 담보 안함 최소책임금액 : U\$100천
보상비율	100%	90% 이내
보험료를	수입자위험 : 0.8% 신용장위험 : 0.2% 수입국위험 : 0.02%	수입자위험 : 1.2% 신용장위험 : 0.2% 수입국위험 : 0.02%
기 타	수출통지 : 없음 국별인수방침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에 한해 적용 보험계약기간 : 1년 단위 체결·갱신 보험료 납부 : 연간 보험료 선납	

라. 수출신용보증(선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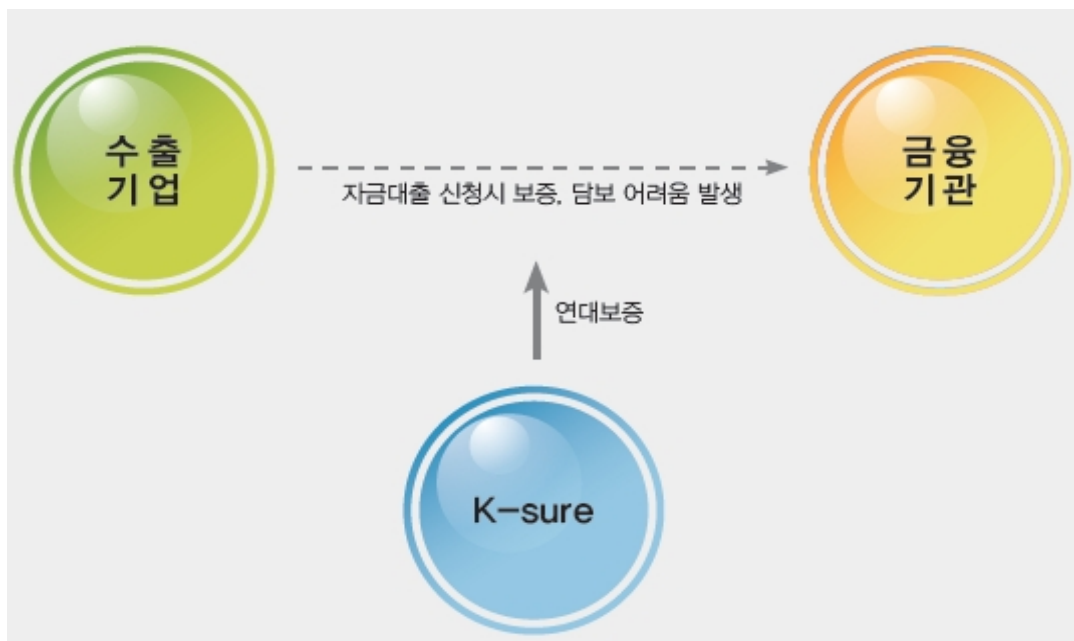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포함)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보증 부대출 또는 신용 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 다만, 건설 공급계약관련 금융은 제외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4.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무역협회 무역기금, 기업은행 해외마케팅자금 등)

-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채무는 신용보증한도 범위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과 신용보증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거래 도해)⁴⁴⁾



마. 수출신용보증(선적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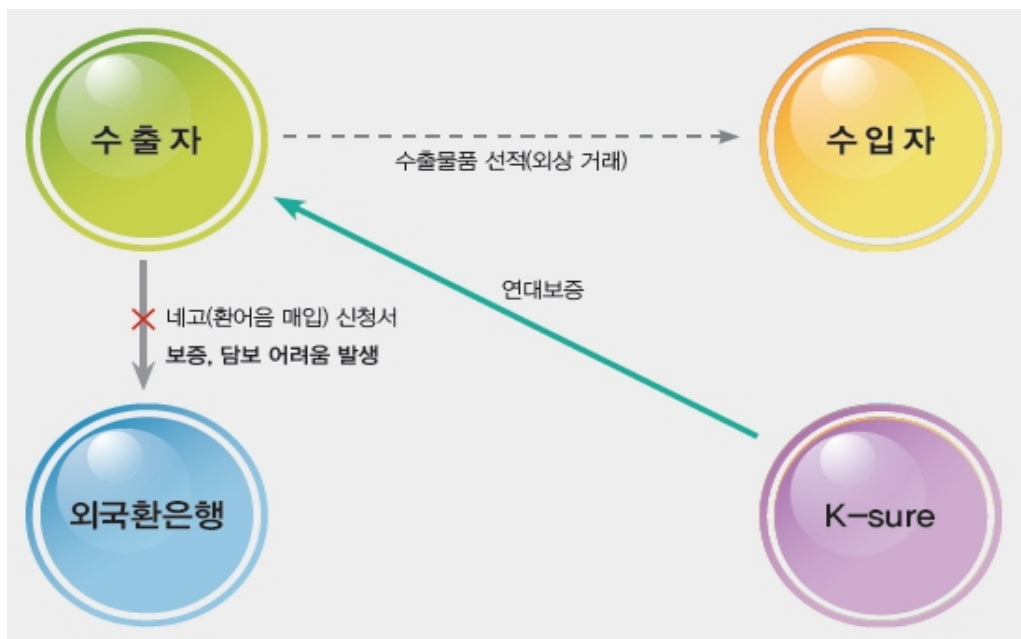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그 상환채무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

44) 한국무역보험공사, 『

』 2012, p.12.

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거래 도해)⁴⁵⁾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요 계약 내용)

구 분	내 용
보증금액	○ 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연체금 등은 보증대상이 아님)
담보위험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보증한도 운영 방식	○ 회전방식으로 운영 ○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결제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 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 신용도, 결제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입자

45) 한국무역보험공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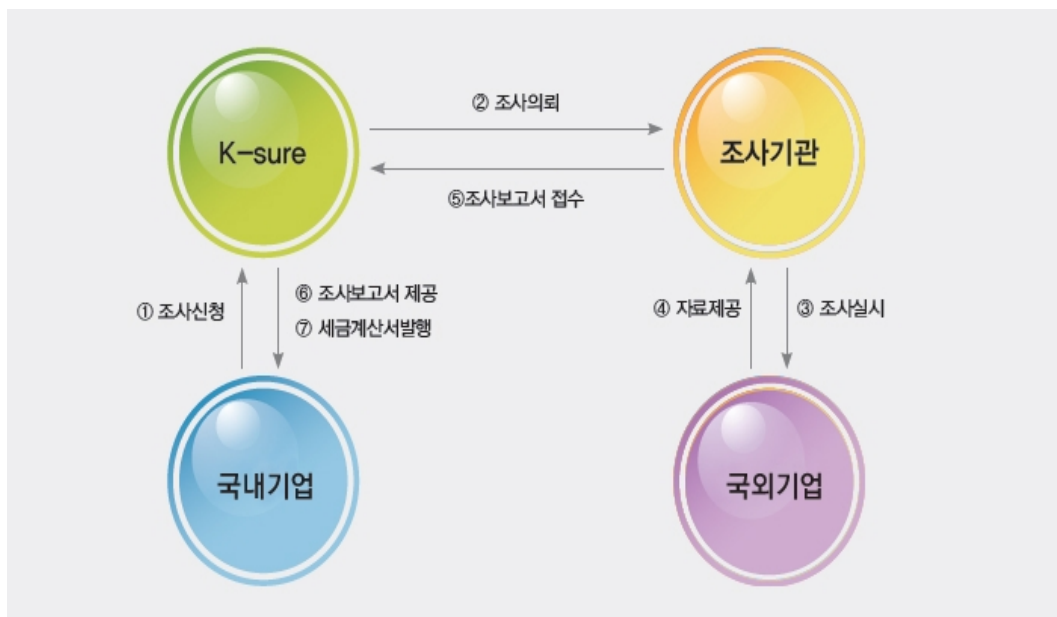
』 2012, p.58.

	별 보증한도 책정
보증약정	○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단기수출보험 의무가입	○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수출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부대비용을 구상할 권리 보유. ○ 그러나 단기수출보험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앞 보증채무 이행시 수출자의 잘못이 없으면 연계된 보험금만큼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따라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를 대비,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과의 연계가입 의무화

바. 국외기업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국외기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실제 조사 소요기간이 변동 될 수 있다.

(국외수입자 신용조사 도해)



사. 해외채권 추심대행

- 해외채권 추심대행업무는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 30여년간 해외채권추심업무 경험축적무역보험공사 13개 해외지사, 57개 현지추심기관 등 전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수출지원 공기관으로서 수출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추심을 대행한다.

(4)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

-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용보증제도는 수출입자금 신용보증과 기업일반자금보증이다.
- 수출입자금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제도이다. 대상기업은 수출신용장 및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해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 하고자 하는 기업, 기타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다.
- 기업일반자금보증은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제도이다.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채무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개별대출금(기업일반자금대출,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만기일시상환 방식), 한도성대출금(종합통장대출,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일정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신용보증제도)

구 분	내 용
일반운전자금	○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기업행복카드보증 등)

창업자금	○ 혁신형창업기업보증 ○ 청년창업특례보증
구매자금	○ 구매자금융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수출입자금	○ 무역보증
시설자금	○ 일반시설자금보증 ○ 임차자금보증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 선박금융 시설자금
비금융상품	○ 이행보증 ○ 담보어음보증 ○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협약자금	○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특화보증프로그램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 고령친화기업 섬김보증 프로그램 ○ 나들가게 다정다감보증 프로그램 ○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
건설공사 브릿지론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지식재산 창출보증	○ 지식재산 창출보증
M&A보증	○ M&A보증

3. 충남도의 지원방안

(1)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확대

- 중소기업 연구소는 연구원 수, 연구원의 학력, 연구개발비 등에서 매우 열악하다. 기술개발의 원천인 연구소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되기 때문에 연구원 수, 연구원의 학력, 연구개발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소의 확대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규모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

속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특정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연구소의 확대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한다면, 불필요한 고정경비를 줄일 수 있고, 연구개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지역유대성, 지리적 접근성, 충남 특성의 이해도 등을 고려할 때, 충남소재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충남소재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충남소재 대학별 연구가능분야, 전문분야, 연구성과 등을 분석하여 충남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호서대, 年 매출 2800억 벤처 크루셀렉 키웠다

국내 최초 창업센터 개설
1995 170 社 매출

호서대는 개당 수억원씩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등 30 社의 장비를 갖춘 장비통합운영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주변 기업에 개방해 기술 개발도 돕고 있다. (PR) 코팅기에 유리기관을 놓고 스포이트로 감광액을 떨어뜨리고 있다. 호서대 제공

연매출 2800 ' '는 종이 장난감을 개발해 학생창업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모모트. 최근 성공한 벤처로 자주 거론되는 이 기업들은 호서대() 1 벤처 육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70% ' '내걸면서 1995 .

◆) 1700 社 매출

지난 3 LG () 디스플레이를 개발 중인 엔디스, 5 社 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서대 벤처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이들 기업의 작년 매출을 합하면 3000 1 3D 프린팅 장비 등 개당 수억원씩 하는 기계 30 .

벤처산학협력관 바로 옆 신기술창업보육센터(TBI) 31 社 벤처기업이 기술 개발에

한장이었다. 2011 30 m², TBI, 학생창업보육센터, 창업학부 등 벤처 창업 관련 시설이 집적한

호서대는 벤처 붐이 막 시작되던 1995 TBI 학생창업보육센터를 개설했다. 1978 1 대학을 설립할 때부터 “ ” 정부 벤처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서울 서초동에 국내 유일의 벤처전문대학원과 창업대학원을 설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특성화 인재양성, (LINC) 등 정부의 창업 관련 프로젝트를 줄줄이 따내고 있다. 10 1간 수주한 정부 사업 규모는 총 1700

◆ 1생· 1수· 1반인 창업 모두 지원

호서대의 창업 보육은 창업 동아리(40)→ 1생창업보육센터 입주→ 1금· 1술 지원을 통한 사업화→ BI 입주→ 1장 부지 제공 등 생산 지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70 . 학생 창업이 18 , 19 . 대표적인 학생 창업 사례인 모모트는 나이키와 명품업체 MCM 20 1원을 올렸다.

호서대는 연고 없는 일반인 창업도 지원한다. 2010 1 코스닥에 상장한 크루셜텍이다. 2001 1 동료 네 명과 함께 호서대 TBI . 호서대는 강의실을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클린룸으로 개조해준 데 이어 이 회사가 2007 2010 크루셜텍은 호서- 5 1째 활동하며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 이노칩 등도 호서대의 창업보육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아산= 1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 2013-05-0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0786141&intype=1>

(2) 수출목적의“복합연구개발센터”설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연구소가 영세하여, 고도의 기술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재정부담 및 위험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연구소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수출목적의“복합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들이 이 연구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이 연구센터에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 “복합연구개발센터”는 중소기업의 수출목적의 연구개발에 맞추어져 있는 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3) “중소기업 연구개발펀드”조성

-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영세하고, 연구개발비가 낮은 가장 주요한 요인은 자금부족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은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절실하며,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므로 “중소기업 연구개발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로 금년 8월 중소기업청은 실리콘밸리 미국 투자자 및 한국교포 등의 자금 2억달러(한화 2,200억원)을 유치하여, 2.1억달러 규모(한화 2,4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⁴⁶⁾
- 펀드조성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부펀드(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관합동펀드, 사모펀드 등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펀드의 사용주체가 충남소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 펀드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충남도에서 일정수익률(예 3%)을 보장한다면, 사모펀드의 조성이 용이할 것이다.

(4) 창조적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최근 세계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엔진이 한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에서는 ‘히든 챔피언’, 영국에서는 ‘창조경제’, 이스라엘에서는 ‘창업국가’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구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창조적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도는

46) 2013.8.29.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그러나 무분별한 지원은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기술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이 강한 강소 중소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경쟁력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평가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전문기관이 기술 로드맵을 짜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핵심기술을 상용화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중소기업의 일하고 싶은 일터화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저생산성에 따른 매출 감소가 저임금,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고급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시행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 i) 장기근속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 ii) 청년인재의 채용을 위한 산업단지의 주거시설 확충, 교통편 확대, 문화 인프라 확대
 - iii) 이론 및 현장 교육 강화
 - iv) 융합교육 강화 및 산업체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
 - v) 산학협력 강화

V. 결 론

-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8위를 달성하였고, 2년 연속 수출규모 세계 7위를 유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은 1,026억달러로 전체의 18.7%로 낮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무역 5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확대와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연구개발은 2.1% 증가하였고, 특히 EU에서는 3.2%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총 규모는 49조 8,904억원으로 세계 6위, GDP 대비 4.03%로 세계 3위의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1.2%, 일본의 25.2%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의 2013년 6월 기준 국내 총 연구소 27,566개 중에서 중소기업 연구소는 25,965개로 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은 평균 81명이지만,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은 평균 5.7명에 불과하다. 또한, 2013년 6월 기준 중소기업 연구소 중 연구원 4인 이하의 연구소는 13,010개로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있어 중소기업 연구소는 대부분 영세하다.
-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확대가 필요하다.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활약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 확장성은 글로벌 강소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이다. 따라서 글로벌 강소기업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 지난해 충남은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수출실적이 3위를 차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비율면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충남은 지리적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수출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다.

- 충남의 수출방향은 우리나라 수출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만큼 중요한 바, 우리나라가 2020년에 무역규모 2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수출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정적 수출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제도에는
-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수출금융, 수출보험, 신용보증 등이 있다. 수출입은행에서는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고,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단기수출자금대출, 포괄수출금융, 기술개발용 수출자금대출, 수출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등이 있다.
-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등이 있다. 그 외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입자금 신용보증과 기업일반자금보증도 이용할 수 있다.
- 현행 지원제도 외에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확대, 수출목적의 “복합연구개발센터”설치, “중소기업 연구개발펀드”조성, 창조적 수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일하고 싶은 일터화 등의 신규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소 확충,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충남의 고용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제도-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

_____, 『2011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12.

국제무역연구원, 『주요무역동향지표 2012』, 2012.

김준기 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차별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연구용역과제, 2012.

산업연구원,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강소기업 성공요인이 체화된 정책 긴요”,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58호, 2013.5.

윤우진, 『창조경제와 산업·무역의 역동성』, 산업연구원, 2013.11.

장상식,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과 수출 확대 방안”, Trade Focus, 2013.2.

중소기업중앙회, “수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현황 및 애로조사”, 2012.6.

_____, 『수출 중소기업 vs 내수 중소기업 ‘인력창출효과 비교분석’』, 2013.6.

_____,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2013.6.19.자).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2013.

중소기업청, 『2012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Ⅰ)』, 2012.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2013.

충청남도, “2012년 수출입 현황 분석 및 2013년 수출전망”, 2013.2.; 충청남도, “2013년 10월 수출입 현황”, 2013.11.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20년사』, 2012.

_____, 『무역보험 제도해설 1』, 2012.

현대경제연구원,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모색”, VIP 리포트 통권 제515호, 2013.2.

(웹사이트)

신용보증기금 <http://www.kodit.co.kr>

중소기업중앙회 : www.kbiz.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s://www.ksure.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www.koita.or.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